

하워드 호주 총리 내외를 위한 오찬사

존경하는 존 하워드 총리 각하 내외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총리 각하 내외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큰 지도력을 발휘해 오신 각하를 만나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한 세기가 넘는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961년 수교 이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전통의 우방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두 나라의 긴밀한 우호협력을 거듭 확인하고, 각하와의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다지게 된 것을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리 각하,

호주의 경제는 최근까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매년 4%가 넘는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고, 지난해와 같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3.8%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각하께서 지난 1996

년 취임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 오신 개혁의 성과입니다. 금융과 노사관계, 그리고 조세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호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튼튼히 다져 오셨습니다. 또한, 각하께서는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으로서 호주 국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단합을 이끌며 작년 10월 '발리 테러사건'의 슬픔과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셨고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각하의 높은 식견과 탁월한 지도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호주는 물론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더욱 큰 업적을 이룩해 나가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리 각하,

이번 달 27일은 6·25전쟁 정전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호주는 우리와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1,600명에 이르는 호주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호주 국민들의 진정한 우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한국민들에게 호주는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양국관계의 발전에도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과 투자의 파트너입니다.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도 매우 큽니다. 이러한 실질협력과 IT를 비롯한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앞으로 더한층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두 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양국의 선도적인 노력에 힘입어 출범했던 APEC은 이제 이 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독립과 평화유지를 위한 양국의 지원활동도 훌륭한 결실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21세기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대륙과 대양을 잇는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와 R&D의 허브로 발전해 나갈으로써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는 평화와 번영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주에게도 동북아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의 연간 수출의 40%가 동북아를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의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우리 두 나라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총리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면과제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신 각하와 호주 정부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폐하의 건강과 하워드 총리 각하 내외분의 건승을 위해서, 그리고 호주의 번영과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영원한 우의를 위해서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